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지역의 성평등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충북여성재단 박혜경 대표이사/여성학 박사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지역의 성평등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박혜경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여성학 박사



박혜경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여성학 박사

진행자 ♪ 대표이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대표이사님의 경력을 살펴 보게 되었는데 강원도, 인천광역시를 이어서 충청북도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성주류화 운동에 헌신하게 되신 계기와 그 과정에서 경력,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박혜경 ♪ 처음 시작은 원래 큰 계획이나 계기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198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은 사상적 탄압과 규제가 심했고, 대학생으로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세미나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여성학 수업이 있었습니다. 강의는 재미있게 들었지만 인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여성의 전화' 활동을 하고 있어 회원활동을 권했습니다. 당시 저는 UNICEF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UN기구니까 급여도 높았거든요. 하지만 혁명을 꿈꾸던 80년대, 그런 시대에 여성의 전화는 작은 사회변화에 일조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성의 전화에 자리가 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는 젠더에 집중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지, 사회변화나 민주화가 먼저인지 등과 같은 논쟁이 심하던 때였어요. 그런 점에서 젠더시각이 언제부터 우리 여성운동으로 들어왔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진행자 ♣ 그럼 여성운동의 1세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박혜경 ♣ 1세대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여성운동에 굉장히 많이 기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87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못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여성운동을 그만둬야겠다, 여성운동 자체가 불필요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저한테 필요했고,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정리하겠다고 생각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됐죠. 대학원 들어갈 때에 다른 이슈는 다 관심없고, 여성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문을 쓰고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여성문제를 분석도 할 줄 모르고, 공감도 안되고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학도로서 사고하는 훈련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박사 졸업하기 전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은 당시 여성연구 관련 센터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저를 채용했고, 제가 와서 여성개발센터를 만들고 나중에 여성정책센터로 이름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박사논문 마무리를 못해서 이대 연구원에 있다가, 박사후 과정으로 미국에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미국에도 있었는데 지역에는 못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장에 나가서 구석구석 돌면서 연구하고 싶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선가 발표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맞긴 한데 그거 서울 얘기일 뿐이지 않냐'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 이후 강원도에서 제안이 와서, 강원도에 가면서 곳곳을 돌며 현장 조사를 다니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니 제 경력이 인천연구원은 광역시의 종합연구원이었고 강원도에서는 도 사업소였으니 공무원이었던 셈입니다. 지금의 여성재단과는 위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성재단이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밑바닥 경험이 없이 다른 위치에 있다가 온 대표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천연구원에서부터 조직의 위상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실무를 담당하면

서 그 생각이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국책연구원에 비해서 여성정책 연구원의 처우가 나쁜 것처럼, 시·도연구원에 비해서 여성재단의 처우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통된 사항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공감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성재단 대표 스스로가 시·도연구원에 있는 박사들은 대단하고 여기에 있는 박사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성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지역에서 여성단체의 요구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도는 어차피 출연기관이니까 자기네가 돈을 주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부서 산하의 발주, 수주 받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조정 가능한 조직으로 뒤야 일이 쉬우니까.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비판적으로 연구하거나 개발도 못하게 되는데, 이걸 지역 여성들에 대한 배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역연고가 없으면 대표가 되기 쉽지 않은데, 그런 제가 재단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행자 ♣ 지금까지 대표님의 경력상의 여정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주류화 논의가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역 수준에서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 충청북도 성주류화 수준과 쟁점들 그리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혜경 ♣ 제가 대표로 온 지가 3달 정도가 되어 충북도 상황 전체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앙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주류화는 구호로 있고 청와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주무기관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정 전반은 따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래 선거 상황에서 젠더 이슈가 뜨면 그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신념이 약했는지 그렇게 보입니다. 지역에서 성주류화는 절대적으로 여성계의 힘에 의해서만 이끌어집니다. 대개 지역에서 성평등 관련 공약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은 선거 즈음에 보이잖아요. 선거 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적극적인 여성계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고요. 재단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가부처럼 약체 기구로 두고서, 성주류화 전반은 사실 성별 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성별영향평가를 강제적으로 할 뿐이고,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인지도도 낮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공무원 세계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고, 지역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성인지 통계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충청북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지역통계가 성인지 통계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인적통계 할 때는 성별로 구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그건 공통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려면 조정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여성정책가족관실이 있는데, 조직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상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관실은 4급 과장급으로 되어있어 조정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도 사업 가질 수는 비슷한데 타부서 대비 예산은 엄청나게 적죠.

하지만 성주류화는 시작을 해서 지금부터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현실화해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성인지·성주류화 등과 같은 언어들 이해되고 친숙해지는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교육도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성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주류화라고 하려면 이것들은 수단일 뿐이고, 성주류화는 정책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위해 앞으로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전반을 꿰고 계십니다. 지역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 제안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을 분들은 지역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읽어보게 될 것 같아요.

박혜경 ♪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릴게요. 여성재단이 지역 여성정책연구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앙과 다르게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에서 성평등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는 조직이나 인적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중앙에서는 난다 긴다 하는 담론 리더들이 있는데, 지역으로 오면 대학에 여성연구소도 없어요. 대학에 여성연구소를 만들려면 젠더이슈에 관심 있는 여성교수가 채용이 되어야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성교수 자체가 채용이 안 되고 그 이슈로 살아남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2030 세대는 저희 세대만큼 타협이나 그런 시간을 기다리겠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민주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언어가 필요하니까 이걸 달라'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지역에서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역 여성재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지역 여성재단이 여성단체들과 같이 연계하는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모아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거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충청북도에 와서 놀란 것은 아주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활활 타올라도,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들의 활동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나 인적 여건 등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역 여성재단이 그런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역 여성

정책의 발전은 여성운동계에서 여러 목소리들과 활동을 통해 정책도 만들어지고 관련 부서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없으면 실제로는 여성정책의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성재단이 이러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자체 건물을 여성플라자의 형태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플라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성 관련 단체들이 입주해 있고, 마당에서 행사도 같이 하고 이런 걸 상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재단이 힘을 가지고 여성들을 모으고 문화를 확산시키고 힘을 주고 이런 광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채워갈 수 있도록 재단이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관의 위상은 처우를 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의 자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도 출연 기관에서 자율성을 얘기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율성이 없으면 공무원처럼 보고서 써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공무원처럼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공무원에게 새로운 언어를 줘라. 그냥 상위 계획에 맞추어 세부사업을 배치하는 공무원식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상황을 읽어주고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수단으로서의 기본계획 수립이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세부사업을 하게 됐다는 식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수단들이 달라져도 상위 언어가 살아 있어서 정책의 중요성을 공무원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충청북도에 와서 놀란 것은 아주 선진적인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활활 타올라도, 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들의 활동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나 인적 여건 등이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여성재단이 연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진행자 ♣ 충청여성재단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박혜경 ♣ 인적구성에서 충청여성재단이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먼저 작은 조직임에도 연구팀, 교육팀, 경영팀,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있고 1366여성긴급전화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재단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팀마다 인원 정원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4년차 들어가는 신생조직이라 직원들이 대부분 젊은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많은 조직에서는 육아휴직이 엄청나게 많은데 반대급부로 대체인력 채용 때문에 단기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에서 성평등 이슈를 잘 가르쳐서 인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차피 수도권에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면 집세 내야 하고 거리도 멀고 이런 계산을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충청북도에 여성정책포럼이라는 여성들의 연대기구가 있어요. 정책포럼은 여협, 여연, YWCA 등 몇 개의 조직들이 결합해서 회의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라자 공간에 사무실도 두고 있고 도에서 재정지원을 합니다. 인력도 한 분 두고 있고, 이번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제 발굴하는 회의도 하고, 양성평등 주간에 같이 행사하고, 수시로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극단, 즉 진보냐 보수냐 나누지 않고 여성계가 같이 모여서 그래서 전체적인 목소리는 상당히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인권분과 무슨 분과, 분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이 심대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성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내고 이것을 현재 지자체장에 머물지 않고 지속성을 가져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경 ♪ 저는 지자체장의 인식이 지역의 성평등정책, 사회변화 속도를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체장 개인이 소양을 갖추거나 양심을 갖추기를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추동해내는 도민들의 의식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 여성시민운동의 활성화에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GDP도 증가하고 인기도 증가하는 발전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20대 청년인구의 이동을 보면 청년인구 유출이 많고, 특히 20대 여성인구 유출이 남성인구 유출에 비해 2배에 달합니다. 인구 감소가 되는데,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것의 결과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인거죠, 이게 무서울 사람은 정치인인 행정가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기 지역구를 잃는 사람들이 무섭죠. 지역소멸론 얘기하면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옵니까? 광역철도 때문에 남자만 와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한 사람이 와서 직장에서 점심 먹고 주말에는 서울 가는데 지역경제가 살지 않죠. 그러려면 여성과 가족들이 내려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평등 정책을 여기서 일·가정 양립, 일·생활 양립 정책이 필요하죠. 지역에서 여성들이 떠나면 다시는 안돌아오는데 가부장제 문화가 너무 지긋지긋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안 돌아오겠다고 이를 갈고 가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딸은 지역에 국공립 보내고 아들은 유학을 보냈어도 이제는 아이들이 적으니까 딸들이 기를 쓰고 가죠. 그때가 탈출 기회니까 안 돌아오고, 젊은이들의 문화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대학을 나온 지역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대학을 나온 신촌지역에

서 주로 모이고 그러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가 마치 제2의 고향처럼. 그래서 지역대학을 살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여기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성장주의만 가지고 안된다는거죠. 성평등정책을 가지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자리를 가지고 일·생활 양립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지역은 GDP가 커지고 그럴지 몰라도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저는 가족 전공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출산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일수록 결혼을 안하고 합리적일수록 출산을 안 하는게 맞아요. 옛날에 애 낳는 것이 당위일 때는 첫아기는 생각없이 낳았거든요. 요즘은 첫째부터 안 낳거나 늦게 낳는 거예요. 우리가 성찰적이 되면 그건 늦어진다는 거죠. 여성들도 결혼보다 냉동난자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시간과 여력이 될 때 그때 어머니가 되는 데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역에서 정책을 개발하게 되면 결국 다른 지역의 인구를 뺏어오게 됩니다. 저는 지역에서 그 전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는 서울에 있는 인구, 경기도에 있는 인구를 뺏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구가 많고 거기에 자원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뺏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도 살 만하다고 느낄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거주공간을 형성하는 데 여성 삶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전략을 쓰지 않으면 지역의 성장주의 개발주의 전략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역소멸은 면치 못할 것이다. 지역정치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지역상이 있죠? 도민들이 와서 바글거리고 여기 와서 살고, 삶의 터전이 되고 활성화된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성장주의 경제 모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성평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살 만하다고 느낄만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거주공간을 형성하는 데 여성 삶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평등전략을 쓰지 않으면, 지역의 성장주의, 개발주의 전략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역소멸은 면치 못할 것이다.

진행자 ♣ 정치인의 생존조건이 성평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혜경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제 생각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준으로 before/after의 시대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지역 여성운동, 지역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과, 충청북도에서 이와 관련된 흐름이나 예견할 만한 것들

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혜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지난 3월에 굉장히 발빠르게 고용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저희도 작년 10월에 이슈브리프로 코로나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고용에 집중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돌봄이 전가된 상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만, 또 다른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돌봄노동이 많았다는 것은 주부, 어머니의 위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다 여성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기록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돌봄이 굉장히 대체 가능한 노동처럼 여겨져서 값싸게 저평가되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들이 그런걸 해냈단 말입니다. 물론 의사도 힘썼지만 간호사 수가 더 많으니까요. 이 여성들의 건강에 미친 영향, 이분들의 처우, 위험수당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촘촘히 살펴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접근성이 사람들 간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사회 곳곳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저희 재단 직원들은 바빠서 못 가던 학회도 가고 못 듣던 교육도 듣습니다. 저희 충청 북도는 성평등축제라는 것이 있는 유일한 도입니다. 그 성평등축제를 2018년부터 했는데 그게 작년 상황에 모이지 못하게 되잖아요. 물리적 접촉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굉장히 쪼개서 여러 행사를 했던 거예요. 지금 2030 세대는 특히 디지털 세계에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에 못 만들었던 조직, 전에 못 나눴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는 성평등축제가 9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쯤 마스크를 벗을지 못 벗을지 모르지만, 온-오프라인을 섞어서 하게 되지 않을까 해요. 제 학창시절에는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어 맨땅에 헤딩하고, 대학에서도 현실적이지 못한 이론적 얘기들만 하고, 취직할 곳은 여성정책연구원밖에 없었고, 우리끼리 연대해서 여성정책대학원 만들어버릴까?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이에 훈련된 세대가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불가능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진행자 ♣ 이제 시간도 충분히 지났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혹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차원에서 말씀해주세요.

박혜경 ♣ 위치가 달랐다면 저도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중앙에만 관심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가졌을 텐데 제가 공교롭게 지역에서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여가부 회의를 갈 때도 그렇고 지역 상황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여가부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제가 오랜 세월 경험을 해보면 중앙에 계신 분들은 지역에 관심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구수도 적고 내가 거기 내려갈 일도 없고 그래서 없더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표를 주는 기준은 지역의 대학과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역 균형발전 아니면 우리의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성장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저도 지역 대학에 있다 보니까 100% 아니라 200% 공감이 되고요. 지역 문제가 민주주의 완성 차원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실무가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지역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에 더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감사합니다.

■ 기획 : 젠더리뷰 기획팀

■ 진행자 :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인권센터장